

MSIK News

한국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앞으로의 전망

미쓰이스미토모해상 한국지점

1. 악화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기와 같이 2009 년도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최근 5년간(2005년~2009년도)의 자동차보험 누계영업적자는 3조 4274억 원, 2010년도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1조 5000억 원을 넘어, 단 년도로는 사상최악이 될 전망이다.

구분	2008년	2009년	10년 9월	10년 10월	10년 11월	10년 12월
업계 평균	70.1%	75.6%	79.3%	79.8%	80.7%	87.0%

* 한국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손해율의 손익분기점은 약 72%.

* 출처: 한국보험개발원(KIDI)데이터

2. 손해율 급등의 원인

1)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

참고) 교통사고 사망자 비교

단위: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한국	6,327	6,166	5,870	5,838	5,505
일본	7,272	6,639	6,023	4,914	4,863

* 출처: 경찰청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 2009년 사망자비교: 인구 10만 명당 한국 12명, 일본 3.8명

(자료: SJC Management News 「한국의 교통안전」 - Orix Capital Korea)

2) 사안마다 지급보험금 상승

- ① 사고차량의 과잉수리: 보험료할증적용이 되는 지급보험금 기준액의 다양화
 - * 지급보험금 200만원까지는 이듬해 갱신 시 보험요율 증가에 영향이 없는 기준 등을 도입(2010년 1월)→200만원까지는 사고에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하여 과잉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
- ② 허위·과잉치료비의 청구, 보험금 사기
- ③ 정비업자의 정비보수 상승(2010년에 평균 16% 상승)

3) 태풍, 홍수, 눈의 영향, 이상한파 등의 계절적인 요인

예) 2010년 9월 태풍에 의한 손해차량: 2만 3천대, 손해액: 310억 원 등의 영향

* 최근에는 2011년 1월 중순의 대설에 의해 하루 10만 건의 긴급 출동건수가 발생

4) 단속 불충분

2009년 8월 교통법규위반자의 대대적인 사면 이후,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들 사이에서 법을 저질러도 적발·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느슨한 인식이 확산되어 법규위반자가 속출,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단속 불충분→보험사기의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 5) 한국정부나 당국에서 자동차보험을 전기, 가스·수도 등의 공공요금과 같게 보는 경향이 있고, 보험료 상승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쉽게 요금상승을 인정하지 경향이 있다.

3. 대책

2010년 12월, 정부관계부처(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의 국장급협의에 의해, 『자동차보험개선책』을 차기 대책으로서 결정.

앞으로 2011년 제 1/4 분기에 구체적인 실행 책이 결정될 예정이다.

- 1) 손해보험회사의 사업비 절감 방안 촉진
- 2) 보험요율체계의 합리화
- 3) 대물·차량보험금의 합리화
- 4) 대인 의료비의 절감 방안
- 5) 교통법규준수, 교통안전대책
- 6) 보험금사기의 근절
- 7) 소비자우대의 자동차보험상품 개발
- 8) 자동차보험 상설협의회의 운영

이상